

# 고창 터미널, 도시 랜드마크 탈바꿈

### 도시재생지구 건축 설계 확정 식당·판매시설·청년문화공간 등 도시 활력 거점 목표 내년 초 착공

고창군이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사업'이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터미널 도시재생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선작은 명료한 동선계획과 공간구성, 도시활력 거점으로서의 상징성 확보, 건축물 용도에 맞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터미널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 회의실, 4층에는 소규모컨벤션 시설,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 다양한 면적의 210세대 아파트를 건립한다.

군은 2층의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새 터미널은 건축설계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임시로 사용하게 될 터미널은 고창읍 목화예식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사이 공간에 마련돼 이달 8일부터 운영된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에는 2022년 12월 군부 지자체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이다.

사업비는 1777억원으로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



고창군이 공개한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위 사진은 건축물 조감도이며 아래 사진은 건축을 투시도.

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상반기 재정집행 전 분야 목표 초과

### 전북 유일...신속집행률 61.3% 정부 목표 대비 6.5%p ↑

남원시가 올 상반기 재정집행 전 분야에서 정부 설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남원시는 신속집행 분야에서 대상액 5021억원 중 3079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61.3%다. 이는 정부 목표 54.8% 대비 6.5%p(328억원)를 넘어선 성과다.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정부 목표액 1066억원 대비 178억원(16.6%p) 많은 1244억원을 집행해 116.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모두에서 정부 설정 목표율을 초과 달성한 곳은 도내에서 남원시가 유일하다.

이 같은 성과는 재정집행 점검회의 수시 개최와 대규모 투자·이월 사업 집행 현황 관리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전략적 대응 결과로 분석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이달의 새, 멸종위기 '왕눈물떼새'

고창군이 '7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왕눈물떼새(사진)'를 선정했다.

왕눈물떼새는 러시아 시베리아 툰드라와 몽골 초원에서 번식한 뒤 겨울에는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이동성 조류다.

고창갯벌에서는 주로 4월부터 10월 사이에 관찰되며 특히 봄과 가을철 이동 시기에 자주 목격된다.

이름에서 '눈이 큰 새'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눈 주위의 검은 무늬가 두드러져 왕관처럼 보여 '왕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깃털의 색이 계절에 따라 변화해 관찰하는 즐거움이 큰 새다.

고창에서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주변과 갈곡천 하구 일대에서 수백 마리의 왕눈물떼새 무리가 비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왕눈물떼새는 민감한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서



식지 교란에 매우 취약하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위기(Endangered, EN) 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 특색 친환경 한옥호텔 '명지각' 개관

### 광한루원 옆 12동 11객실

남원에 지역 특색을 살린 친환경 한옥호텔이 들어섰다.

남원시는 한옥호텔 '명지각'에서 전일 최경식 시장과 시·도의원, 남원시관광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명지각'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

정됨에 따라 국비 39억원 등 총 94억원의 들여 조성한 한옥호텔이다. 연면적 870㎡, 지상 1층, 12동 11객실 규모로 건립됐다.

1956년 지어진 전통가옥을 수리한 본관과 민간 한옥을 증축한 동관으로 구성됐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특색이 장점이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영유아들과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 환경을 제공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물빛축제' 27개 부스 운영자 공모

### 8월8일~10일 개최...7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지역 여름 대표축제인 '물빛축제'를 앞두고 먹거리와 체험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간식부스 14개소, 푸드트럭 6개소, 주류부스 5개소, 체험부스 2개소 등 총 27개 부스운영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정읍에 소재한 단체 또는 업체이며 신청은 시청 본관 4층 관광기획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

메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메일 접수 시에는 신청서류에 서명·날인한 스킨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읍 물빛축제'는 '한여름밤 락(樂)페스타'를 주제로 오는 8월8일부터 3일간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청춘음악 페스타, 청소년댄스 페스티벌, 물빛 워터밤, 이벤트 게임, 더위사냥 체험, 프리워킹 로드(차 없는 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 사랑을 채우는 정읍 '공유 냉장고' 3년새 5억 기부

### 수성동·내장상동 등 4개소 운영 식품 기부금 총 7만8129세대 전달

정읍시는 시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냉장고' 사업에 현재까지 3년간 1403개의 기부처에서 5억831만원 상당의 식품과 기부금이 기탁돼 7만8129세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성동과 내장상동, 시가동, 연지동 등 4개소를 운영하는 공유냉장고는 시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식품 기부의 창구로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개설 이후 해마다 참여와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기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따뜻함과 신뢰를 상징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앞으로도 공유냉장고를 중심으로 한 '정읍형 나눔복지' 실현에 속도를 내 복지 사각지대를



정읍시 공유냉장고에 식품을 기부하러 온 어린이들.

해소하고 공동체 돌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공유냉장고는 단순한 물품 나눔을 넘어 이웃 간의 온정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민간 단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40

1985  
2025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